

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급효과

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('13.12.4) 및

금융투자 판매 · 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

마이애셋자산운용 이대우

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('13.12.4) – 향후 일정



사모펀드 유형 단순화 /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

일반사모

PEF

헤지펀드

재무안정 PEF

규율체제

단순화

“전문투자형” 사모펀드

“경영참여형” 사모펀드(PEF)

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: 전문 운용사 신설

집합투자업자 라이선스단위 및 자기자본 요건(개선)

구분	전문+일반 투자자 대상(인가)	전문투자자 대상	적격투자자 대상 (사모, 등록)
종합	80억원	40억원	⇒ 통합 5억 이상 시행령 ?
증권	40억원	20억원	
부동산	20억원	10억원	
특별자산	20억원	10억원	
혼합자산 (헤지펀드)	60억원 (적격투자자 대상)		

- ※ 다양한 유형의 펀드 설립 가능
- ※ 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가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
 - 인적/물적요건,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
- ※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를 사후보고제(14일내)로 개선

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

1.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 제한

- 전문투자자

: 국가, 금융기관, 기금, 상장법인

: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 이상인 개인

: 100억 이상의 법인 등

- 일정금액이상 투자자(시행령: 범위 설정)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

※ 미국 Accredited investor : 순자산 100만 달러 또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

영국 High net wealth investor : 순자산 25만 파운드 또는 연소득 10만 파운드 이상

2.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

- 사모펀드에 자산의 50%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

-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

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 정비

1. 직판 허용

- 투자매매/중개업 인가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 허용

2. 완화된 주의 의무

- 고객조사의무와 설명의무만 적용
- 투자손실에 대한 자기책임 명확화(확인서작성)
- 투자 광고 허용(제한적)

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

1. 자산보관/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의무화

- 투자자산의 보호
-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대폭 강화

※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: (현행) 10% → (개선) 5%
펀드별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: (현행) 50% → (개선) 25%

금융투자 판매/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방안(2015년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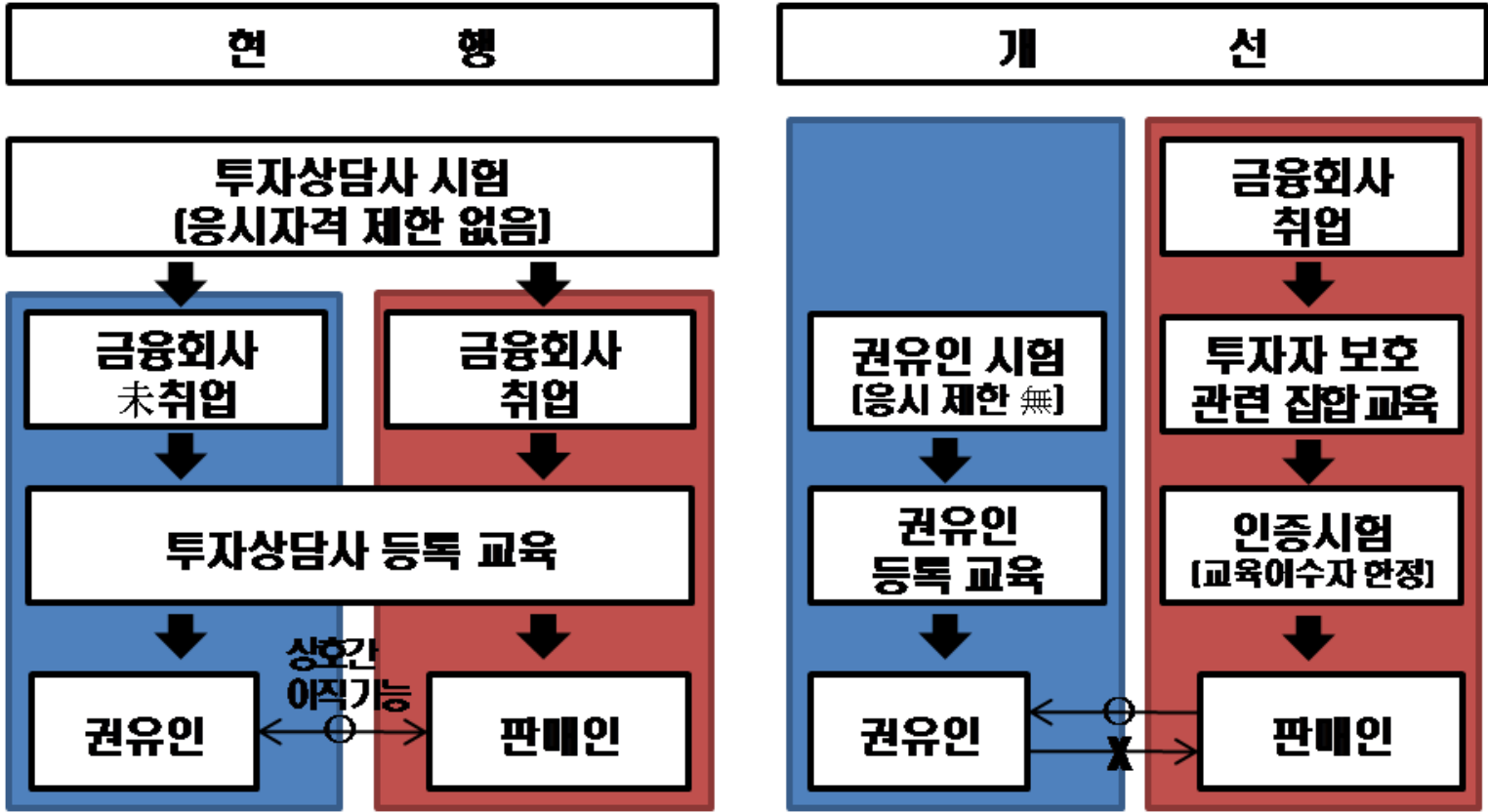
시험제도 개편

1. 금융회사 직원**만** 응시
 - 적격성 인증제도(시험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교육)로 전환
2. 인증시험
 -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만 시험자격 부여
 - 출제문항 : 100문항 → 120문항 (**윤리 및 분쟁예방**)
 - 합격기준 : 평균과 과락 **각각 10점 상향**

사전 교육 (교육방식 및 교육시간을 대폭 강화)

1. 시험 전 10시간 이상의 “**투자자 보호 관련**” 집합교육을 **의무화**
 - 법규, 분쟁예방, 직무윤리 등에 대한 Case Study 중심 교육
 - 상품 등 전문성 관련교육은 금투협과 금융회사간 협의 → 자율적 실시

투자상담사 시험 개선방안 전후 비교



금융기관별 파급효과

1. 연기금 및 보험사 (아웃소싱기관)

- 펀드관련 비용감소로 인한 수익구조 개선

2. 증권사 (기존 판매회사)

- 선취보수/판매보수 감소로 인한 수익악화
- 지점 고정비의 상대적인 증가로 지점 영업 악화

3. 기존 운용사 (집합투자업자)

- 자문사 연계 펀드(집합투자기구)의 환매로 수익구조 악화

Fundamental

■ FTA

절대적 비교우위론

M/S 강화

+

OEM /ODM

국적 소멸

무차별적 Global M&A 진행

투자 대상의 선별적 Approach 요구

Financial

■ 바젤 & IFRS

기업별 대출

요건 양극화

+

국가별

신용도 차별화

Global 신용등급 차별화

적자 생존에 의한 금융기관별 양극화 심화

동시적 진행

무한경쟁에 따른 생존을 저하

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

중형사의 틈새시장 공략

소형사 M&A 대상/퇴출